

제84회 동아시아고대학회 학술대회 “동아시아문화와 관광콘텐츠”

- 일시 : 2021년 11월 20일 (토) 11:00~15:00
- 장소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회의실 1415
- 주최 : 동아시아고대학회 · TINA · 경산시

10:30 ~ 10:50	참가자 등록
개회식	사회: 유형동(전남대학교)
10:50 ~ 11:00	개회사 동아시아고대학회장 송완범
제1부 기획발표 및 토론	사회: 김병모(동국대학교)
11:00 ~ 11:30	<기획발표1> 동아시아 역사를 통한 문화 관광 확대에 대한 제언 발표: 홍성화(건국대학교)
11:30 ~ 12:00	<기획발표2> 관광자원으로서 경북의 문화재 현황과 수요자 지향적 활용 발표: 류호철(안양대학교)
12:00 ~ 13:30	점심 식사
제2부 기획발표 및 토론	사회: 고남식(대전대학교)
13:30 ~ 14:00	<기획발표3> 경주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스토리텔링 기법 연구 발표: 이채영(동국대학교)
14:00 ~ 14:30	<기획발표4> 일제강점기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 설립과 금강산개발 발표: 장혜진(원광대학교)
14:30 ~ 15:00	종합토론 좌장: 송완범(고려대학교, 동아시아고대학회장)
15:00	폐회

동아시아 역사를 통한 문화 관광 확대에 대한 제언

- 경산, 경상북도와 일본 관계를 중심으로 -

홍성화 (건국대)

〈目 次〉

I. 머리말	IV. 北九州 지역의 역사문화 콘텐츠
II. 경산 지역의 역사문화 콘텐츠	V. 맺음말
III. 경북 지역의 역사문화 콘텐츠	

I. 머리말

관광이란 그 나라나 그 지방의 풍경, 풍습, 문물 따위를 구경하는 것으로 항상 역사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역사문화 콘텐츠에 대한 개발은 공연, 방송, 출판, 게임, 만화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경제적, 문화적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은 문화 콘텐츠 생산의 선두주자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선사시대 이래 현재까지 다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문화 관광의 소재로서는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경산, 경북 지역에 있어서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일본과의 관련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난 연후에 경제적, 문화적으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하고 조직화하여 관광의 요소로서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산을 비롯한 경상북도 지역에서 문화 관광의 대상으로 유효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추출하여 일본과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더욱이 오래전부터 한반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北九州 일대에서도 한반도와의 관련성을 통해 문화 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경산 지역의 역사문화 콘텐츠

경산 지역은 일찍이 『三國史記』에 등장하는 압독국의 근거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압독국은 신라 파사왕 23년(102년)에 신라에 투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 영남대학교 앞 임당동과 조영동, 압량면 부적리 일대 구릉지에 지름 20m, 높이 4m에 이르는 대형고분 30여기가 모여 있는 등 예로부터 압량벌로 알려진 이 지역에는 상당량의 고분이 산재해 있었다.

이곳에서는 금동관을 비롯하여 금귀걸이, 반지 등 장신구류와 마구류, 여러 형태의 토기류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어 2~7세기경까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임당 고분에서 다양한 제사 음식 가운데 특히 많은 양의 상어뼈가 발견된 것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산 임당 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특별전을 통해서 상어뼈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상어를 주제로 한 “상어 그리고 돛배기”라는 전시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상어는 한자어로 沙魚, 鯊魚, 鯊, 鮫를 사용하였고 鮫魚로도 불렸다. 이처럼 상어에 대한 표기는 沙魚, 鯊, 鯊魚 등으로 다양하였으나 발음은 상어로 동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경상도지리지』에서 상어를 산출하는 지역으로 동해를 접하고 있는 흥해군, 동래현, 기장현, 장기현, 영일현, 영해도호부, 영덕현 등이 있으며 남해에 접한 김해도호부, 창원도호부, 고성현, 사천현, 하동현, 진해현 등이 있다. 따라서 경상에서 출토된 상어는 동해안과 남해안에서 잡아 경상도 내륙으로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九州의 福岡 元岡·桑原(모리오카·구리하라) 유적군에서 연력 4년(785)이라는 연대가 기록되어 있는 목간에 沙魚皮라는 한자어가 보인다. 또한 奈良縣 平城宮 內裏 北方 官衙地區에서 발견된 목간에서 佐米라는 한자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일본어로 상어를 의미하는 ‘さめ’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또한 平城京 左京 三条二坊 八坪 二条大路에서 출토된 목간에서는 상어를 의미하는 鮫라는 한자를 사용하고 협주로 佐米를 사용하여 일본어 발음인 ‘さめ’를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상어의 한자 표기가 동일하였으며 그 발음 또한 유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 시대에 있어서 상어를 통한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교류를 짐작해볼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Ⅲ. 경북 지역의 역사문화 콘텐츠

경산 지역으로 상어가 이동되었던 경로를 확인해보면 첫 번째로 울산, 포항, 영일, 영덕 등의 동해안으로부터 경주, 경산으로 유입된 루트를 상정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김해, 창원, 부산 등의 남해안으로부터 낙동강을 따라 대구, 경산으로 이동했던 루트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에서 포항, 영일, 영덕 등지로부터 경산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해를 맞는 영일 지역은 특히 『三國遺事』에 나오는 延鳥郎과 細鳥女の 고사가 서려 있는 곳이다. 신라 阿達羅王 4년인 서기 157년, 하루는 연오가 바다에 가서 해초를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라섰던 바위 하나가 움직여 그를 신고는 일본으로 갔다. 연오는 일본에 가서 그곳 사람들에 의해 일본의 왕이 되었다. 한편 세오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괴이하게 여기고는 바닷가에서 남편을 찾다가 우연히 바위 위에 올라서니 이 또한 바위가 그녀를 신고 일본으로 가게 되어 결국 연오와 해후하게 되었다고 한다.

연오와 세오가 일본으로 간 후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어 온 세상이 캄캄해졌는데, 일본에 있는 연오가 보낸 비단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낸 뒤에서야 해와 달이 예전과 같이 빛났다고 한다. 그 비단을 임금의 창고에 두어 나라의 보배로 삼고는 그 창고를 貴妃庫라 하였으며 제사를 지낸 곳을 영일현 또는 都祈野라 이름하였다 전한다.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곳이 동해면에 있는 해달못 또는 日月池로서 현재 일월지로 전해지는 곳은 해병1사단의 부대 안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동해면사무소 뒤편 언덕에 지방민들이 다시 세운 일월사당이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라왕자 天日槍(아메노히보코)의 설화가 연상된다. 신라의 왕자로 아내를 찾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아메노히보코의 설화는 붉은 구슬이 동녀로 변하였다는 것을 비롯하여 빛을 비추어 낳았다고 하는 북방신화의 日光感精型의 모티프를 갖고 있다. 아메노히보코의 전승은 원래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건너간 도왜인들에 의해 소박한 형태로 전승되어 오던 것이 『古事記』와 『日本書紀』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Ⅳ. 北九州 지역의 역사문화 콘텐츠

福岡縣 北九州市 門司區에 있는 風師(가자시)에는 마을 동네 비탈길 위로 자그마한 공원이 있는데, 현재는 葛葉百濟町公園(구즈하구다라정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지금은 모지 일대에서 백제라는 이름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1970년 가자시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는 百濟町이었던 곳이다.

원래 모지라는 곳은 간몬 해협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으로는 혼슈의 시모노세키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예로부터 이곳은 세토내해를 통해 近畿로 향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따라서 모지 일대에는 고대 한반도계의 지명이 많이 남아 있었다.

예전 이곳에는 百濟(구다라), 高麗江(고마에), 新羅崎(시라기사키)라는 지명이 남아 있었던 곳이다. 하지만, 현재는 葛葉(구즈하), 小森江(고모리에), 白木崎(시라기사키)로 바뀐 상태에 있다.

이처럼 예전에 백제, 고려강, 신라 등 한반도계의 지명이 있었던 것은 近畿 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고대 교통의 요충지였던 모지 해안에서 한반도에서 건너왔던 선박 등이 정박하였고 이들 중 일부는 北九州 지역에 거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문화 관광의 대상으로 주목되는 경산, 경북 지역과 일본열도 관련 역사문화 콘텐츠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중에서 상어를 통한 고대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교류를 살펴볼 수 있었고 연오랑과 세오녀 및 天日槍의 전승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았다.

北九州 지역 또한 간문 해협을 사이에 두고 세토내해를 통해 近畿로 향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한반도와의 관련성 속에서 문화 관광의 소재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古事記』

『日本書紀』

경산시립박물관, 한빛문화재연구원, 『압독국의 왕 ‘干’, 영원 불멸을 꿈꾸다』, 특별기획전 경산 조영EⅢ-2호, 2011

谷川健一, 金達壽, 『地名の古代史』, 河出書房新社, 2012

국립대구박물관, 『상어 그리고 돛배기』, 2015

김은영, 「조영EⅢ-2호 출토 어골에 대하여」, 『압독국의 왕 ‘干’, 영원 불멸을 꿈꾸다』, 경산 시립박물관 특별기획전 경산 조영EⅢ-2호, 2011

金在弘, 「고대 상어의 고고 환경과 문화권」, 『한국학논총』46, 2016

이장웅, 「문헌에 나타난 한국 고대 동물 관념과 의례」, 『제4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발표문』,
2017

홍성화, 『한일고대사 유적답사기』, 삼인, 2008

홍성화, 「지명과 신사」, 『일본 속의 百濟(규슈 지역)』, 충청남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8

관광자원으로서 경북의 문화재 현황과 수요자 지향적 활용

류호철(안양대 교수, 문화재 정책 및 교육)

- 목 차 -

1. 관광, 멈춤과 새로운 도약
2. 경북 관광자원의 특성과 문화재 현황
3. 관광자원으로서 문화재의 특성과 관광 활용 방향
4. 결론

1. 관광, 멈춤과 새로운 도약

2-3년 사이 관광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실상 멈추다시피 하는 큰 타격을 입었다. 관광 분야 학문을 전공한 학생들은 취업 문이 막혔고, 심지어는 입사시험에 합격한 후 신입사원 교육을 이수하고도 그 회사에 근무하지 못하는 일도 속출했다. 대학에서는 관광 관련 학과들이 취업 전망이 가장 어두운 전공으로 손꼽히기도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COVID-19)라는 지금을 사는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염병이 세계를 휩쓸어버린 결과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황을 벗어나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시작했다. 관광 분야에서도 관광이 다시 전과 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것 한두 가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관광이 양적 팽창만을 추구하며 전염병 이전과 같이 관광객 늘리기에만 몰두하면 되는 것인가가 첫 번째 문제다. 그동안 우리나라 관광은 ‘관광산업’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관광을 산업적 관점에서 보는 데 집중하며 양적 팽창을 추구해왔다. 현황을 집계하고 실적을 평가할 때도 특정 관광자원이나 지역의 관광객 수, 경제적 효과 등 양적 지표에 관심을 집중했다.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도 여전히 관광객만 늘어나면, 그래서 관광지가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면 그것이 관광산업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관광은 공급자 시각에서는 산업이고 또 직업이므로 관광객이 많아져야 하고 소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것만이 바람직한 방향인 것은 아니다. 관광자원은 문화적인 것이든 자연적인 것이든 제각기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걸으로 드러나 있는 생김새나 그것이 만들어내는 분위가 등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관광자원이 갖는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자연적 가치 등 본질적인 것들은 그것을 알고 직접 경험해보면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인문학이 처음에는 공부로만 느껴지지만 그 맛을 알게 되면 거기서 정신적 즐거움을 얻으며 그 매력에 빠지게 되는 것과도 같다. 겉으로 드러난 것들, 관광자원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만 즐기던 것에서 한층 고차원적인 정신적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질적 관광’ 또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질적 활용’을 시도할 수 있다.

전염병(COVID-19)로 인해 멈추었던 관광을 다시 일으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지금이 이러한 질적 관광, 질적 활용도 함께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양적 성장을 추구하던 것에서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양적 성장을 버리고 질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공급자적 시각에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어야 관광산업이 유지되고 관광지 등 관광자원 현장에서 관광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이 공급될 수 있으므로 양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질적 관광, 질적 활용도 함께 추구하며 양을 유지하면서도 관광의 질도 높여나감으로써 관광자원이 갖는 본질적 가치를 누리고 나누는 시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시도는 관광을 포함해서 인류가 오랜 기간 양성 성장과 편익성 등 이기적이라고 할 만큼 사람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야기되었던 갖가지 문제점들을 완화시키고 피해가는 길이 될 수 있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전염병도 이러한 인류의 이기적인 행태가 빚어낸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지금은 관광의 방향에 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때다. 단순한 재도약을 넘어 더욱 바람직한 방향을 찾고 추구하는 ‘새로운 도약’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2. 경북 관광자원의 특성과 문화재 현황

관광자원은 그 종류와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관광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것은 물론이고 관광에 필요한 것들을 크게는 모두 관광자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관광객이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것들, 관광객이 그곳을 찾고 싶어지게 하는 매력적인 것들일 것이다. 이것들은 크게 문화적 자원과 자연적 자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유형·무형 문화재와 공연, 농어업 현장 등이 문화적인 자원인 데 비해, 산과 바다, 자연경관 등은 자연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경북 국가 지정·등록 문화재 현황

지정·등록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합계
수량	56	364	102	15	70	11	95	64	777

그중에서 경북은 동해에 면하고 있으면서도 문화재가 가장 풍부한 지역이다. 국가 지정문화재를 기준으로 하면 경북은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지정·등록 문화재가 많은 곳이다. 그런데 서울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고궁박물관 등 대규모 박물관이 있어서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의 문화재들 중에서도 수도 서울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대량으로 소장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경북은 사실상 전국에서 지역 문화재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경북이 관광자원으로서 문화재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문화재가 갖는 특성을 찾고 그에 맞춘 관광을 추구할 때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관광자원으로서 문화재의 특성과 관광 활용 방향

경북 관광은 이처럼 문화재 수량이 많고 그 비중이 크다는 특성을 충분히 살릴 때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문화재는 특히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어 함께 살아오는 과정에서 형성하고 유지해온 것들이어서 다각적인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다.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 세계관과 자연관, 자연에 대응하고 그것을 활용한 방법 등 삶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소들이 문화재에 녹아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재에 담긴 이러한 문화적 의미와 가치는 단순히 겉모양을 보고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만으로는 누릴 수 없다. 감각적으로 즐기는 것은 겉모양이나 분위기만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나, 문화재를 문화재이게 하는 그 본질적 의미와 가치는 감각적 만남이나 수용을 넘어설 때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앞에서 살펴본 양적 팽창,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문화재에 담긴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누리기는 어렵다. 문화적 의미와 가치는 질적인 것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그 매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생각하는 관광’이며, ‘느린 관광’이다. 관광자원으로서 문화재에 담겨있는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관광 속도가 느려진다. 느린 관광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곧 관광의 질을 높이는 ‘질적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겉만 보고 분위기를 즐기던 관광, 그렇게 하는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오게 하는 데 집중하던 양적 관광에 문화재 등 관광자원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찾으며 질을 높이는 질적 관광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관광객 모두가 그렇게 질적 관광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런데 관광자원이 갖는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찾고, 눈으로만 보던 것을 벗어나 직접 경험하며 느끼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 경향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나, 장시간 또는 장기간을 두고 문화를 경험하려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특히 문화재가 풍부한 경북은 질적 관광을 함께 추구하고 시도해보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 멈추었던 관광을 다시 시작하는 지금이 이

러한 질적 관광을 병행하기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천천히 생각하며 하는 관광은 걸만 보고 지나가는 관광, 분위기를 즐기는 관광으로는 얻기 어려운 또 다른 관광의 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질적 관광, 질적 활용은 그에 필요한 여건이 조성되고 관광객들 사이에 분위기와 인식이 형성될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경북 관광자원 현장을 찾는 사람들이 쉽게 찾으면서도 흥미롭게 보고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시·군 경계를 넘어 관광객이 따라가며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제안하는 방법,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해설사들의 해설 수준을 한층 높여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적절한 수준의 교육과 관광이 어우러지게 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법, 이미 상당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재 활용 사업들의 관광 효과를 높이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 지향적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그것이다. 관광은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가 하는 것이므로, 다른 지역에서 관광을 설계하고 관광자원 현장을 쉽게 찾아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관광객 자신이 그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들을 찾아다니며 그것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질적 관광은 조금씩 실현될 수 있다.

4. 결론

경북은 특히 문화재가 많은 지역이다. 이런 특성은 전염병으로 인해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서 양적 성장과 활성화에 더불어 질적 관광, 질적 활용을 병행하기에 적합한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적 시각에서는 관광객이 많이 오기만 하면 성공적인 관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의미와 가치를 가진 문화재 등 문화관광 자원으로 보자면 양적 성장만 추구하는 것은 아쉬움이 큰 일이다.

이와 함께 사람들이 직접 관광을 설계하고 쉽게 찾아올 수 있게, 현지에서도 쉽게 돌아다니며 관광할 수 있게 하는 수요자 지향적 서비스 공급 체계를 갖출 때 관광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관광자원으로서 문화재는 다각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지므로, 이를 흥미로우면서도 효과적으로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하는 콘텐츠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양적 성장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나, 여기에 질적 활용, 질적 관광이 더해지면 경북 관광은 그 수준을 한 층 높일 수 있고 지속 가능성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류호철

안양대 교수, 문화재 정책 및 교육 전공
010-6217-2800, heritagist@daum.net

경주 지역을 주제로 한 TV 예능 프로그램의 스토리텔링 기법 연구

- <알쓸신잡1> '경주 편'을 중심으로 -

이채영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차례 -

- I. 서론
- II.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 포커스를 둔 비선형적, 상호작용적인 스토리텔링 구성
- III.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는 다층적 스토리텔링 기법과 '경주' 지역의 조화
- IV. 결론

I. 서론

TV 프로그램이 특정 지역을 주요 소재로 내세우며 다양한 포맷으로 변화를 시도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양 시사 프로그램, 리얼 버라이어티, 관찰 예능, 인문 예능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TV 프로그램에서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특색을 영상 서사와 이미지를 통해 생생하게 재현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각종 TV프로그램에서는 특정 지역을 주요 소재로 내세운 포맷이나 스토리텔링 전략을 지속하고 끊임없이 다양화를 시도하는가? TV 프로그램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에는 크게 5가지의 효과가 있다.

첫째, 지역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구축하여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둘째, TV 프로그램의 방영 이후 관광객 방문 유치의 확대와 이를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셋째, 지역 관광 자원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발굴을 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재조명을 통한 후속 관광 자원 개발의 연장과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다. 넷째, 1차적으로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2차적으로는 TV 프로그램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3차적으로는 TV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SNS나 다른 매체를 활용한 리터러시 활동을 통해 해당 지역의 역사와 현재성, 또 장소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대한 문화 기억 및 새로운 의미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다섯째, TV 프로그램 및 특정 지역에 대한 논의와 의미장의 형성 및 확장은 TV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문화 콘텐츠 및 문화관광,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관련 후속 연구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tvN에서 방영된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¹⁾ 중 시즌1의 4,5화인 '경주 편'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TV 프로그램의 분석을 거쳐 특정 지역의 관광 자원과 문화가 어떻게 해석되고 재현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알쓸신잡1>의 '경주' 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경주라는 지역의 특수성 및 인지도와 <알쓸신잡1>의 포맷 및 스토리텔링 전략이 다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지점 및 특수성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경주는 문화 유적이 오래도록 보존되어 온, 특수한 지역 중 하나이므로 그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가 다양하게 적층되어 있어 다층적인 서사 진행 및 로컬

1) 이 프로그램 내에서도, 그리고 언론의 보도에서도 프로그램의 긴 제목을 줄여서 통상 <알쓸신잡>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도 논의의 편의상 <알쓸신잡1>으로 줄여서 지칭하고자 한다.

리티와 문화적 특수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포착하거나, 자연스럽게 확장하기에 안성맞춤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리얼 버라이어티나 여타의 시사 교양, 예능 프로그램에서 취하던 포맷과 달리, <알쓸신잡1>의 독창적인 스토리텔링 구성 방식은 경주 지역 문화 관광 자원의 다층성과 경주 지역의 다성적인 이미지를 심층적으로 고찰, 도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알쓸신잡1>의 스토리텔링 기법을 지역과 따로 떼어 논의하지 않고 <알쓸신잡1>의 해당 에피소드가 주제로 삼고 있는 지역과 연결하여, 선행 연구에서 도출되지 않았던 <알쓸신잡1>의 스토리텔링 기법과 함께 해당 지역(경주)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주의 로컬리티를 재고하고, 나아가 TV 예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관광 자원 개발, 그리고 관광지 활성화의 방안 및 방향성의 다양화 시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 포커스를 둔 비선형적, 상호작용적인 스토리텔링 구성

<알쓸신잡1>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여행에 출연진의 대화를 결합하는 포맷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출연진은 여행지를 주제로, 또는 여행지와는 상관없으나 대화의 흐름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화제나, 다른 출연진의 질문에 대한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를 옮겨가는데 이러한 '대화' 및 '대화의 과정'이 <알쓸신잡1>의 독자성을 강화한다.

그런데 이러한 대화나 대화의 과정을 단편적으로 '대화'로만 파악해서는 <알쓸신잡1>의 주요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구체적으로 도출해 내기 어렵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 '대화'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대화의 흐름, 대화 속 화자와 청자의 교류 등 대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체계화하여 분석해야 <알쓸신잡1>의 스토리텔링 특성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대화와 관련해서 이서라는 미하일 바흐친의 대화주의의 핵심 개념인 다성성(polyphony)를 설명하면서, <알쓸신잡>에 대해 “플롯 구성이 전형적이지 않으며, 등장 인물에게 독립적인 서술(자)의 권위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다성성의 지향점과 접점을 이루는데 이는 기존 리얼리티 예능의 서사 문법을 따르지 않는 서술 방식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²⁾

그의 지적처럼 기존의 예능 프로그램과는 달리, <알쓸신잡1>은 순차적 구성을 취하지 않는다. 또한 출연자가 관광지에 가서 무엇을 체험하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따라다니며 취재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 소개하지 않는다. 대신 <알쓸신잡1>은 출연진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소를 거점으로 삼아, 실제 여행지들에 대한 정보를 대화 내용에 맞추어 간략하게 편집하거나 몽타주 형태로 요약 제시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다. 즉, '관광 행위' 보다는 이를 '타인에게 전달, 공유하는 대화의 과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행지에서 관광하고 체험하는 과정은 짧게 제시되고, 오히려 대화를 행하는 거점으로 경주의 특정 숙소나 식당 또는 카페 등을 배경으로 대화가 이어지는 장면이 더 많이 제시된다.

<알쓸신잡1>은 '지금, 여기' '경주의 숙소'에 모인 관광객들의 대화 속에서 발견되는 경주에 대한 정보와 서사를 산발적으로 쫓아다니면서, 특정 화제가 언급되면 그 화제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시하기도 하고, 역사를 소개하기도 하고, 또 그 화제와 관련 있는 출연진의 관광 에피소드를 축약해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펼쳐낸다.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는 구성 방식 때문에 한 사람이 시작한 이야기에 대해 다른 출연자가 응수하며 그 주제를 심화하거나,

2) 이서라(2020), 「텔레비전 예능프로그램의 다성성(Polyphony) 연구: tvN<알쓸신잡>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연구』 제57호, 인문콘텐츠학회, pp.10~11.

또는 다른 방향으로 대화의 물꼬가 트여 주제가 확장되거나, 급변하는 흐름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어색하거나 억지스럽지 않고 대화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의 지속에 의해 대화에 등장한 주요 소재에 대한 설명이나 주장의 전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특성 역시 함께 포착된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구조화하면, 관광 순서나 시간에 따른 이동 경로에서 비껴난, ‘지금 여기’에서 나누는 대화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라는 점에서 비선형적 구조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스토리텔링의 특성은 구술 문학 본연의 특성이기도 한데, 제작진이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대화’ 즉, 구술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현장성, 상호작용성, 비선형성을 확장하는 서사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쓸신잡1>만의 독자적 스토리텔링 기법을 확인할 수 있다.

III.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는 다층적 스토리텔링 기법과 ‘경주’ 지역의 조화

<알쓸신잡1>의 두드러지는 스토리텔링 특성 중 하나는 액자식 구성의 스토리텔링 문법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액자식 구성이란 주로 소설을 중심으로 한 서사 이론에서 논의되어 온 구성 방식이다. 액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액자식 구성은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존재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뜻한다. 액자식 구성은 겉 이야기와 속 이야기가 각각 층위에서 존재하되, 액자를 중심으로 보면 일정 부분 연결되는 지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독자성을 지닌다.

<알쓸신잡1>의 액자식 구성은 다음 과정을 통해 분석된다. 1)화면의 전환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야기를 시작하는 출연자 중 한 사람을 클로즈업하거나, 대화를 듣고 있는 출연진들을 한 컷에 모두 담은 구성을 교차로 전개하다가, 2)출연진의 대화에 화제로 등장하는, 출연진의 관광 체험 장면이 삽입된다. 이로써 시청자는 3)이야기를 나누는 알쓸신잡의 출연진의 대화 현장(겉 이야기)을 바라보다가 4)출연진의 이야기가 실제 영상으로 재현되는 속 이야기를 함께 접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속 이야기가 출연진의 여행이나 문화 체험 촬영 영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주, 또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는 영상과 교차되어 다채롭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또는 5)출연진이 이야기하는 장면(겉 이야기) - 출연진이 이야기하는 소재와 관련해서 출연진이 관광하거나 탐방하는 장면(속 이야기) - 관광하면서 발견하는 경주의 역사나 문화를 서사로 소개하는 장면(속의 속 이야기)으로 이야기가 다층적으로 얹혀서 전달되는 다층 액자식 구성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다층 액자식 구성이 한 명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종횡하며 전개되어 이야기는 콜라주 기법과 모자이크 기법처럼 불규칙하게 적층되면서 다성성을 드러낸다.

주목할 부분은 <알쓸신잡1>이 다른 회차의 에피소드에서도 물론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특성을 보이긴 했으나, 특히 ‘경주’라는 지역과 결합되면서 <알쓸신잡1>의 다성성과 이야기의 적층성이 더욱 강화, 확장되어, 다른 지역을 주제로 한 에피소드들이 1회차에 종결되는 것과는 달리, ‘경주 편’의 경우 2회에 걸쳐 서사를 전개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서사 전개와 확장은 ‘경주’라는 지역의 특성에 기인한다. 경주는 어떠한 도시인가? 신라의 천년 고도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색채가 강하며, 문화관광의 요지로 오래도록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로컬리티 및 문화적 특수성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문화적 기억이 오래 내재되어 전승될 수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한편, ‘문화적 기억’은 아스만(J. Assman)에 의해 논의된 바 있는 개념이다. 아스만(J. Assman)은, 개개인이 공동의 규칙과 가치에 구속되어 있고 과거에 대한 공통적인 기억을 가

지고 있는데, 개개인이 서로를 '우리'라는 집합 명사로 부를 수 있게 하는 '연결 구조'가 있다고 논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연결 구조는 '반복과 현재화'로 '순환'을 통해서만 문화적 기억의 의미가 잊히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³⁾

<알쓸신잡1> 역시 출연진의 '경주'에 대한 기억에서 출발한다. 이는 <알쓸신잡1>- '경주 편'의 오프닝과 초반부의 서사 진행 및 전체 에피소드의 흐름 속에서 쉽게 발견되는 독자적인 소재 선정 및 구성 방식이라 볼 수 있다. 즉, <알쓸신잡1> '경주 편'에서 포착되는 경주에 대한 기억은, 출연진이 이미 내재하고 있던 집단 기억의 일종이며, 나아가 이러한 대화의 과정을 통해 '경주'에 대한 새로운 집단 기억, 문화적 기억이 형성, 전승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각자의 문화 기억을 대화의 과정에서 다채롭게 발견하면서, 앞서 등장한 대화의 주제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또 다른 경주 관련 문화 기억이 재현되면서, 경주에 대한 로컬리티와 문화적 특수성을 확장해 나가는 <알쓸신잡1> 스토리텔링 구성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곧 과거의 의미를 전승하는 문화적 기억을 중심으로, 상징, 상징물, 제의 및 축제, 도상, 장소 등의 매체를 통해 과거와의 유대를 활성화하는 기능⁴⁾을 하고, 나아가 과거의 현재화와 끊임없는 문화적 기억에 대한 탐색과 공유,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이처럼 각자의 문화적 기억을 다양하게 탐색하고 공유하고 확장하려면 해당 지역의 장소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적 기억이 단편적이고 협소하게 재현되지 않고, 다양하고 다층적으로 드러나려면, 해당 지역의 문화 자원이 풍부하고, 역사적 소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많은 이야기를 내재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에도 관광이나 여행의 명소로 기능하고 있어야 한다. 경주는 이러한 특성을 모두 지니는 역사와 관광의 도시이며, <삼국유사>를 비롯한 많은 기록물 및 구전되어 오던 민담 등이 다양하게 보존된 곳이다. 이러한 경주의 장소성은 다층적 스토리텔링 기법과 잘 결부될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경주 지역을 주제로 한 TV 예능 프로그램인 <알쓸신잡1> '경주 편'을 중심으로 첫째,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 포커스를 둔 비선형적, 상호작용적인 스토리텔링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TV 프로그램과 대별되며, 다양한 논의의 장, 의미의 장을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출연진의 대화와 기억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구성 방식을 통해,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는 다층적 스토리텔링 기법과 '경주' 지역의 조화를 탐색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주 지역을 소재로 한 여타의 TV프로그램과의 비교를 구체적으로 시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TV 프로그램 스토리텔링 기법을 지속적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토대로 TV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관광 자원의 개발 및 홍보, 관광객의 유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지면의 제약으로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3) 황연주(2007), 「문화적 기억과 매체 그리고 비주얼 리터러시」, 『문화예술교육연구』제2권 1호, 한국문화교육학회 p.23에서 재인용; Jan Assmann(1992), Das kulturelle Gedächtnis. Schrift, Erinnerung und politische Identity in frühen Hochkulturen, München.

4) 이도담(2016), 「문화적 기억과 장소에 관한 성찰: A. 아스만의 『기억의 공간』을 중심으로」, 『철학과 문화』제36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문화연구소, p.88.

A study on storytelling techniques of
TV entertainment programs with the theme of Gyeongju
- Focusing on <Miscellaneous Dictionary - 'Gyeongju'>

Lee Chae Young (Dongguk University)

In this study,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V program's storytelling technique were analyzed focusing on a TV entertainment program <Miscellaneous Dictionary - 'Gyeongju'> with the theme of Gyeongju. Second, how this storytelling technique utilizes the actual locality of 'Gyeongju' and what effect such use brings was examin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Gyeongju' of <Miscellaneous Dictionary> took a non-linear, interactive storytelling structure that focused on the 'conversation' that takes place in the 'here and now'. In this respect, it was largel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TV programs, and it was forming a new arena of various discussions and meanings. In addition, through the composition method that revolves around the dialogues and memories of the cast, it was possible to explore the harmony between the multi-layered storytelling technique that retells the story and the 'Gyeongju' region.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that it did not specifically attempt to compare it with other TV programs that deal with the Gyeongju area.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systematize TV program storytelling techniques using local resources through follow-up studies.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cultural tourism resources using TV contents and attraction of tourists will be activated.

일제강점기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 설립과 금강산개발 -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20년사』를 중심으로-

장혜진

1. 들어가며

금강산은 금강산선 철도개발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금강산선은 강원도 철원군의 철원역과 금강산의 내금강역을 연결하던 유일한 전기철도로, 1919년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가 설립되고 1924년 금강산선이 최초로 개통된 후 1931년에 이르러 전 구간 개통이 완료되었다. 다만, 일제강점기 말기 전쟁의 심화와 일본의 패전, 한국전쟁을 겪으며 금강산선은 파괴되었으며 남북한 분단 이후 현재 철원군 한탄강변에는 금강산선 철교의 흔적만 남아있다. 그 후 철도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안보관광으로써 1998년 선박을 이용한 금강산관광이 시작되고 2003년에는 육로관광이 시작되었으며 2008년까지 누적관광객 194만 명을 돌파했다. 금강산은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의 장이 되었으며 금강산에서는 각종 문화·예술 교류가 이루어졌다. 금강산은 단순한 관광자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인생과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인문학의 장(場)이기도 하다. 통일로 향해가는 길목에서 남북한이 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통의 문화적 관심을 만들어 나가는 공간으로서 금강산은 많은 함의를 지니고 있다.

금강산에 대해서는 신라의 마의태자 전승부터 조선시대 학자들의 유산기(遊山記)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행문이 있으며 근대에는 영국의 탐험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1890년대)을 시작으로 이광수의 『금강산유기(金剛山遊記)』(1924), 최남선의 『풍악기유(楓嶽記遊)』(1924), 『금강예찬(金剛禮讚)』(1928)가 발표되는 등 국내외 지식인들의 금강산 방문은 금강산을 더욱 대중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오늘날 한국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의 근대 인문·사회적 측면에 대한 기록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금강산 개발에 있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20년사』는 일본인의 금강산선 건설 및 개발과 관련된 자료로 금강산선의 시작과 발전에 이르기까지의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당시 일본이 주목한 금강산의 관광학적 가치에 따른 금강산개발에 있어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의 금강산개발 실태를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20년사』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2.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 성립 배경

먼저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는 왜 조선에서 철도산업을 전개하였는지, 또 어떠한 성격을 가진 회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 20년사’(이하, ‘20년사’로 약칭)의 기록에 의하면,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를 창립하게 된 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조선총독부가 당시 조선의 사설 철도 부설되는 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둘째, 관련 법령을 마련하여 조선총독부가 감독과 보호를 하였다. 셋째, 1914년 이후 예산을 지원하였다. 넷째, 일본 자본을 유입되게 하여 일본 국책으로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년사'에서 회사 설립 취지를 간략하게 발췌해 보자면, 첫째, 동양 제일의 절승지로서의 조선의 금강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의 실현. 둘째, 탑승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요구에 의한 수요가 큰 사실. 셋째, 수력발전을 이용하여 전기 철도를 부설하면 동력비를 절감할 수 있어 수익률이 높음. 넷째, 이 지역의 1차 산업이 발달하고 여객의 왕래가 빈번한 곳. 다섯째, 국가적 사업으로써 경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유일한 안전 투자 사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는 수도권에서 강원도와 금강산을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탑승객의 증가와 함께 필요한 개발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강원도 인근지역의 농산, 임산, 광산 등의 산업 발달이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 수송에도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조선총독부의 비호를 받는 '안전 투자 사업'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19~1920년의 호경기의 파도를 타고 조선에서는 연이어 사철철도회사(이하, 사철회사)가 창립되었다. 그러나 1921년 말 즈음부터 경제 공황의 영향으로 각 회사는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었고 1922년 가을 즈음에는 이들 사철의 합병 필요성이 제창되기에 이르렀다. 즉, 제1차 세계대전에 사철회사가 많이 설립되었는데, 세계 경제 공황으로 인해 그 경영이 점차 어려워졌다. 자금난부터 철도사업이 진전되지 않고 사철회사에서는 총독부에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으로 주식에 대한 배당을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사철회사는 자본금 대부분을 일본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았고, 총독부는 철도건설을 촉진하여 철도망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사철회사에 보호, 지원을 제공하였다. 다만, 경제 공황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에서의 총독부도 공채 발행과 재정상의 문제로, 철도망 정비에 있어 사철회사에 의한 철도건설을 필요로 하였고, 한편으로는 일본 투자자들은 주가가 침체되면서 사철회사의 경영 개선을 위한 부담을 총독부 재정으로 전가하기를 희망하였다. 이처럼 총독부와 투자자들은 이처럼 상호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총독부가 사철회사에 대한 투자를 보장해야만 하는 한편, 그 투자가 보장되는 것으로 투자자들은 총독부 재정과의 연계가 밀착해진 것이다⁵⁾. 그러나 조선경남철도와 함께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는 합병에 참여하지 않았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를 비롯한 당시의 사철은, 「국책에 의한 철도건설로 반관반민적 성격」을 띠었다고 해도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는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을 최초로 사업화하면서, 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전기사업도 겸영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 '20년사'에 의하면, 1913년 니시지마 세이코(西島正恭) 외 2~3인이 북한강 상류 화천강 유수를 일본해측 중대리 황교천(黃橋川)으로 흘러보내 통천평야의 내몽리(內蒙利) 구역 2500여 정보(町步)의 초목의 미개간지 및 밭에 관개용수를 대어 논으로 변환하는 관개사업을 기획하였다. 이에 도쿄 교바시구(京橋區) 아카시정(明石町) 하기노 요시조(萩野芳藏)에게 그 원조를 부탁하였는데, 그는 당시 시바우라(芝浦)제작소 사장이던 오타구로 주고로(太田黒重五郎)에게 자문을 받고 본래 관개사업을 했던 계획을 수정하여 수력발전사업이 유망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사무카와 쓰네사다(寒川恒貞), 요시카와 산지로(吉川三次郎)가 현지 조사를 하게 되면서, 공사비 견적도 저렴하고 화학공업용 동력으로서 상당히 유망한 지점이 되겠다고 판단하여 관개사업은 잠정적으로 연기하고 수력발전과 화학공업을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기화학공업전력으로서는 불리하다는 판단 하에 일반 공급사업으로서 장래성이 없어 보이자, 구메 다미노스케는 수력전기를 어떻게 소화시킬지에 대해 궁리한 끝에, 경원선 철원역에서 준양군(淮陽郡) 안풍

5) 矢島 桂, 「植民地期朝鮮への鉄道投資の基本性格に関する一考察-1923年朝鮮鉄道会社の成立を中心に-」, 『経営史学』 第44卷第2号, 2009, pp. 59~84.

면(安豐面) 화천리에 이르는 사이에 철도를 부설하여 여기에 전력을 사용하고 잉여 전력은 철도 연선의 전등과 전력에 공급하고 또한 경성 방면으로도 송전하여 지방 개발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는 금강산 개발이라는 목적 하에 철도사업을, 또 수력발전에 의한 전기사업을 동시에 구축하면서, 창립 당초의 계획서대로 자가 발전에 의한 철도운영 개시의 목적을 갖고 그 실행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러나 실제 사용량보다 상당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20년사'에서는, 그 잉여 전력을 철도 연선 및 경성 방면에 송전하여 일반 가정 에 공급함으로써 지방 문화,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3. 회사 창립과 전기철도 개발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가 창립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먼저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조선 내 답사를 두 차례 실시한 것을 알 수 있다. 1918년 4월 구메 다미노스케(久米民之助)가 경성에서 금강산 일대를 답사하였고, 인근 지역들의 산업과 철도 부설의 경제적 이익 창출의 예상을 하였다. 그러면서 조선수력전기주식회사 창립 준비 조합으로부터 해당 지역 하천 수리권 양수를 내부적으로 약속을 받아내었다. 두 번째 답사에서는, 해당지역의 지형의 특수성에 따라 처음으로 유역변경식 발전법을 채택하였다.

화천하(化川河) 수력권은 1918년 7월, 금강산 전기철도주식회사 발기인인 구메 다미노스케와 조선수력전기주식회사 창립준비 조합 대표자인 오오타구로 슈고로(大田黒重五郎), 사무카와 쓰네사다(寒川恒貞)의 사이에서 양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회사설립에 돌입하게 된다. 회사 설립은 1919년 3월 25일 마코시 교헤이(馬越恭平) 외 14명의 발기인 연명으로써 경편(輕便) 철도 부설 허가 신청서와 보조금 하부 신청서를 조선총독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본사는 도쿄에 설치하고 지점을 강원도 철원에 설치, 그리고 조선 각지에 출장소를 설치하였고 경성과 금강산 방면을 연결하는 철도 부설은, 당초부터 여객과 화물의 수입을 동시에 예상하고, 또 정차장 수입, 전차 광고료 등을 잡수입도 상정하고 있었다.

1919년 6월 25일 발기인은 전기철도 부설의 허가 및 보조금 하부를 신청하면서 하천 사용권을 강원도 지사에게, 전기사업 경영 허가 신청서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하였다. 또 1919년 8월 11일부로 조선총독부의 철감(鐵監) 제457호에 의해 전기철도부설의 허가, 체전(遞電) 제1144호에 의해 전기사업 단속 규칙 제1조 제2호의 전기 사업 경영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이외에 하천 사용 등의 모든 절차상 허가는 1919년 11월부로 완료하였다. 경편 철도 허가의 유효 기한은 1970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는 1919년 8월 22일 도쿄에서 발기인 총회로 제국 철도 협회가 개최되었고, 자본금 500만원(10만주)으로 회사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1919년 12월 16일 도쿄 마루노우치 철도 협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회사 창립 선포하였고, 12월 22일에 설립 등기 및 임원 선출도 완료하였다. 그리고 일본투자자들을 모아 주식을 성공리에 모집하였다.

이러한 회사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조선총독부는 그 관리감독기관으로써 다음과 같은 권한이 확인된다. 첫째, 매수 매각에 있어 조선총독부가 이를 감독하고 공채 이율을 조선총독부가 정한다. 둘째, 육해군 관헌(官憲)에게 경편 철도를 군용(軍用)으로 제공하기를 명할 수 있으며, 1904년 칙령 제12호 철도군사 공용(供用)령 및 육군성령 제3호 철도군사 수송 규정에 준한다. 셋째, 회사가 기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해 주임 기술자를 채용할 때 이

력서를 첨부하여 그 씨명(氏名)을 총독부에 신고한다. 넷째, 미래에 정해지는 법령의 결과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 인정될 때에는, 총독부는 당초 회사와 체결한 명령서의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총독부는 사철회사의 사업 운영에 있어 상당한 운용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군수 이용이라는 특수 목적에 언제든지 동원될 수 있고, 이는 곧 조선 수탈이라는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회사 창립 시기가 겨울이었고, 실제로 철도 부설 공사 등 이것도 겨울에 진행되었다. ‘20년사’에 의하면 강원도에서의 부설 공사는 고난과 고충의 연속이었으나, 철원 기점에서 10여리의 철도선로 및 회양군, 안풍면, 관유리의 취수구(取水口)에서 통천군 벽양면(碧養面) 중대리 발전소 설치지에 이르는 수로, 및 철원 지점의 사무소, 또는 사택 건설 등에 대한 모든 계획이 착착 진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철도는 철원을 기점으로 내금강역에 이르는 116.6km 사이를 부설하고, 말회리(금강구)부터 외금강을 거쳐 장전항으로 나와 국유선과 연결시키면 내외금강 및 해금강 탐승의 편리성을 증대시키면서 철도로 이어지는 일대의 개발에도 공헌할 것이라 하고 있다. 즉 철도는 관광 목적을 가짐과 동시에 철도와 연결되는 강원도 인근 지역의 산업 개발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반복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회사는, 1920년 9월 9일에 강원도 통천군 벽양면 중대리 발전소의 방수 이용에 따른 제 2, 제3 발전소를 설치하고, 각 약 5천KW의 전력을 얻게 되었다. 동월 18일부로 하수 인용(引用) 및 전기사업 경영의 허가를 조선총독에 신청하였다. 또 1921년 8월에는, 철도와 송전선 연선에 잉여 전력과 전등 공급하고, 경성 방면 송전 공급을 위해 동월 15일부로 공급사업 경영 인가를 신청하였다. 경성 방면으로의 송전에 대해서는 1920년 9월 8일 만철 경성관리국과 전력 수급에 관한 각서(覺書)를 교환하고 동년 10월 25일부로 공급사업 경영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 모두 동년 11월 7일부로서 허가 받았다. 유효기간은 허가한 날로부터 25년으로 즉 1946년 11월 7일까지로 설정하고 있다. 전등 및 전력 공급 구역은 강원도 지역, 전력공급구역은 경성, 경기도까지 이른다.

4. 당시의 금강산 개발

‘20년사’에 따르면, 회사는 “금강산이 있어서 당사가 생겼고, 또한 당사가 생겨서 금강산은 그것을 감추고 있던 구름을 젖히고 세상에 나왔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대금강과 당사는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稗本文彦에 의하면 19세기말에 이자벨라 버드 등에 의해 경승지로서의 금강산이 발견되었고, 『금강산탐승기』에 따르면, 1910년대에는 경승지로서 정착되었다고 한다. 1915년 금강산을 시찰하여 그 결과를 대일본산림회보에 투고하여 소개되었다. 그 사이 조선총독부 철도국은 금강산에 관광개발을 실시했으나 그 수는 한정되어 있었다. ‘20년사’에서도, 개발 이전의 금강산에는 등산객을 위한 시설과 같은 것이 없었고, 다만 총독부가 하계 등산 도로를 수축(修築)하고, 철도국 호텔이분관을 산내에 설치하여 등산객에게 편리함을 부여한 것 정도였다고 한다. 즉 금강산 등산객은 매우 한정되어 있었고 그 수도 적었으며 아무리 천하의 절경을 지닌 금강산도 속세로부터 격리된 모습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919년 금강산 전기철도 주식회사 설립을 계기로 관광개발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금강산전기철도는 앞서 말한 것처럼 구메 다미노스케에 의한 관광개발의 의도에서 설립되어 1929년에는 철원-금강 구간의 전선을 개통하였고, 대폭적인 교통수단 개선을 실현하였다. 내금강에서 비로봉을 넘어 외금강에 이르는 등산로의 개발을 행하고 구메산장 등의 거점 정비를 행하였다. 탐승객들을 위해, 대금강(大金剛)을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과 신금강으로

크게 나누어 탐승할 수 있도록 하고, 외금강역-온정리 간의 철도와 버스도 연결하여 금강산 관광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다. 더불어, 내외금강 등 숙박 시설도 정비되어, 일본식 숙박시설로는 내금강 산장, 외금강 산장, 온정리의 영양관(嶺陽館), 만룡각(萬龍閣), 송월(松月) 등이, 내금강역 앞에는 부지화(不知火) 여관이, 장안사에 내금강 여관, 봉래관(蓬萊館) 등이 생겨났다. 또한 조선식 여관으로는 온정리에는 금강, 경성, 외금강 등의 각 여관, 장안사에는 장안, 금강산 등의 각 여관, 마하연에는 마하연 여관, 유점사에는 산영관(山映館), 비로봉에 용마(龍馬) 둘 오두막집 등이 마련되었다.

국립공원화계획은 1930년의 금강산 보승회 설치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금강산 보승회는 조선총독부 산림부를 비롯하여, 토목, 종교, 통신, 내무국 등의 총독부 관계, 강원도청, 철도국과 더불어 금강산전기철도에서 구성된 관민 공동의 조직이다. 국립공원화계획은 금강산전기철도에 의한 관광개발의 일환으로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조선총독부를 주축으로 하여 국립공원 조성 계획은 순탄하지 않았다. 국립공원화 계획에는 조선총독부의 내무국, 학무국, 철도국이 각각 분담하여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내무국은 유람 도로의 조성 및 개수(改修), 학무국은 산내의 사찰 보호, 철도국은 온천, 여관의 개선 등을 담당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문제에 봉착되면서 일시 보류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 산림 특히 수목의 정리, 보호는 풍치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 특히 세계에 유례없는 고산식물 다수를 포함하여 식물학자를 경탄시키고 있는데 풍우화에 의해 기암괴석이 자칫하면 수목 여럿과 함께 붕괴하여 풍치를 해치게 할 수 있다. 혹은 도벌(盜伐)에 걸릴 수도 있다. 이들의 대책은 어떠한가.

○ 도로에 대해 내외금강의 연락 도로의 건설이 필요한데 신평리에서 한하계를 거쳐 온정리로 나오는 길은 연락도로로 만물상 기슭을 거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이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부근 일대의 풍치 혹은 탐승 기분에 영향은 없는가.

○ 사찰 수가 많고 게다가 대부분의 사찰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관계로 사유림(寺有林)은 그대로 두고 요즘에는 특하면 산속의 수목을 도벌하는 형세이다. 이는 사찰의 보존 유지조차 도저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므로 이들에게 일정한 생계비를 염출해주는 방안을 연구해내야 하지 않을까.

○ 여관 설비는 오늘날에 이미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온천지 또는 천하의 절경지로서의 시설은 심히 빈약하다. 이들 시설 개선은 탐승객 유인의 선결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 과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 개발은 진행되었으며, 이 계획의 핵심은 조선총독부와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나오며

이상,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20년사』를 근거로,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의 성립부터 금강산 개발의 당시 현황까지 살펴보았다. 현 정권에서의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에서, 금강산 및 강원도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다. 동해선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원 벨트’를 구상함과 동시에, 이미 안보관광으로서 개성, 판문점, 금강산은 주요 관광지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와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에 의해 금강산의 관광자원 수탈이라는 차

원에서 금강산 개발의 가치가 새삼 부각되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금강산은 철도와 전기의 기반시설이 구축되면서, 이는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 수송이라는 교통 수단의 편리성은 물론, 금강산 관광 개발과 인근지역의 산업 개발, 전기 에너지 생산 등의 복합 산업이 망라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미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특히 금강산은 일제강점기 동양 최고의 절승지로서 국제적 관광지로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리적 특성을 살려 풍부한 수력발전 자원과 세계적 관광지로서 개발 가능한 금강산과 강원도는 앞으로의 남북 관계 개선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 관광 중심지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 20년사』 (기록물)
- 김백영, 「금강산의 식민지근대-1930년대 금강산 탐승경로와 장소성 변화」, 『역사비평』 131, 2020. p.385
- 鮎川伸夫, 「植民地朝鮮における石炭産業」, 『大阪経大論集』 第54巻第2号, 2003, p.131
- 砂本文彦 「日本統治下朝鮮半島における国際観光地・リゾート地開発に関する研究」 『訪韓學術研究者論文集』 第9巻, 일한문화교류기금, 2007, pp. 71~100
- 水内佑輔·栗野隆·古谷勝則, 「金剛山国立公園計画からみる田村剛と上原敬二の計画思想に関する研究」, 『ランドスケープ研究』 79(5), 2016, p.431
- 水谷昌義, 「国有鉄道のメートル法実施時の駅間営業料程表の発見」, 『安田女子大学紀要』 47, 2019, pp. 31-40.
- 矢島桂, 「植民地期朝鮮への鉄道投資の基本性格に関する一考察—1923年朝鮮鉄道会社の成立を中心に—」, 『経営史学』 第44巻第2号, 2009, pp. 59~84